

정치권 盧 前대통령 서거 후폭풍

민주 “정치 보복 李 대통령 사죄하라”

한나라 “국회서 토론과 대화로 풀자” 靑 “野 정치공세 고인의 뜻과 안맞아” 친박 서정원 대표 “표적수사 희생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폭풍이 정치권에 불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책임론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대어 강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조기 개최, 국회 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치공세로 간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달 31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MB악법’ 철폐와 대북 강경정책 폐기 등 정책 기조 전면 전환 및 인적쇄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 등 수사 라인 즉각 파면 등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1일 수사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비롯, 검찰의 ‘편파 기획, 과잉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천신일 특검법’ 관철, 검찰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내놓으며 검찰에 대해서도 공격을 시도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공지에 물린 이 정권은 전직 대통령을 제물로 삼아 비열하고 악의적으로 정략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강공 드라이브의 강도를 예고했다.

이에 친박연대도 거들었다. ‘공천현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친박연대 서정원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전 정보를

흘려 의혹을 부풀린 이 나라 사법부의 표적수사, 정치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직접 대응을 자제할 채 신중하게 대응했다. 심부름 대응이 자칫 민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월 임시국회 조기 개최 및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 대표의 대통령 사과 요구 등에 대해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고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고인의 유지를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루달라는 취지인데 곧장 정치 공세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했던 사람들이 조문 정치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율배반적이고 정략적인 행동”이라며 역공도 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왼쪽에서 두번째) 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지지율 4년만에 한나라 앞서

“盧 前대통령 서거 현 정부 책임” 67%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당 지지도가 지난 2005년 이후 4년 만에 한나라당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컨설팅업체 ‘원지코리아컨설팅’(대표 이근형)이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27.3%로 20.8%를 머무른 한나라당 지지도를 앞섰다.

지난 4년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20%대를 넘은 적은

몇 번 있었으나 한나라당에 비해 대부분 오차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뒤졌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지난달 26일 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21.0%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한나라당 (27.8%)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을 앞섰으며,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울산·경남에서 20.0%의 지지율을 얻어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의견은 73.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현 정부 책임론과 관련, 응답자의 66.8%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고 ‘현 정부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은 31.6%에 불과했다.

69.7%가 검찰 수사를 ‘편파적’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정책위의장 누가 되나

박지원·이용섭·전병헌 의원 등 거론

민주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광주의 이용섭 의원과 전남의 박지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박지원 의원의 경우,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후보 주자로 나왔음에도 20표나 얻어 지력을 과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풍부한 국정경험 등을 통해 그동안 활발하고 인상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당내외에서 역시 ‘박지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이 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도 정책위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세청장, 행정부총장,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의 이 의원은 그동안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토대로 ‘부자 감세’ 등의 이슈를 제기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의 정책 수립과 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우윤근 수석원내대표 등이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은 박지원, 이용섭 의원의 정책위의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수도권 재선인 전병헌 의원, 충북 재선의원인 변재일 의원 등이 유력한 정책위의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동영 의원 측근인 수도권 재선인 박영선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親盧 부활? 盧 서거이후 향배 촉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친노무현계 정치인들이 다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친노그룹은 현재 민주당내에 서갑원, 백원우 의원과 안희정 최고위원 등 소수 남아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마했으며 입성에 성공한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주요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 때문에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적 여건이 좋아진 만큼 과거 친노그룹내 소그룹을 이끌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해찬 전 총리 김두관 전 행정부총장 등 몇몇 거물급 인사들이 재보선 등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하거나 원내에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재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 유시민 전 장관이 16.5%로 2위에 올랐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2%와 7.7%로 그 뒤를 이었다. 비록, 범국민적 추모열기가 작용됐지만 2~4위를 친노인사들이 싸늘이할 정도로 정치적 여건이 개선된 것이다. 1위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27.8%)이었다. 물론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친노인사들이 다시 전면으로 나선 경우 개혁진보진영에 유리하게 흐르는 정국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p>SINCE 1975</p> <p>(주)남해관광</p> <p>남도그린투어</p> <p>광주 관광 225-5544</p> <p>광주 골프 224-3366</p> <p>서울 관광 02) 2111-1515</p> <p>서울 골프 02) 2111-0111</p> <p>http://www.ngtour.co.kr</p>	<p>골프투어</p> <p>전남 지역</p> <p>무안cc 1박2일 179,000원~</p> <p>함평cc 1박2일 215,000원~</p> <p>영광cc 1박2일 175,000원~</p> <p>보성cc 1박2일 149,000원~</p> <p>레이크힐스 1박2일 209,000원~</p> <p>파인힐스 1박2일 215,000원~</p> <p>전북지역</p> <p>군산cc 1박2일 195,000원~</p> <p>고창cc 1박2일 165,000원~</p> <p>선운cc 1박2일 215,000원~</p>	<p>경북/경남 지역</p> <p>한백cc 1박2일 245,000원~</p> <p>아델스코스 1박2일 270,000원~</p> <p>강원 지역</p> <p>블랙밸리cc 36을 1,790,000원~</p> <p>설악프라자cc 36을 2,350,000원~</p> <p>제주도 골프투어</p> <p>360,000원~(주출발)</p> <p>사이프러스+제피로스</p>	<p>홍도·흑산도 투어</p> <p>홍도(흑산도) 1박2일</p> <p>134,000원~</p> <p>●목포 승도착(오전/오후 가능)</p> <p>기차 테마 여행</p> <p>백도(거문도) 1박2일</p> <p>133,000원~</p> <p>●승정리역 승도착</p>	<p>제주 웰빙투어(고품격)</p> <p>올레 패키지 2박3일</p> <p>▶ 주중 : 210,000원</p> <p>▶ 주말 : 240,000원</p>
---	---	--	--	---

목장용지급매

- 위 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승리
- 목장용지 : 6,390㎡(1,933평)
- 대 지 : 476㎡(144평)
- 총 계 : 3,734평
- 건 평 : 2,350㎡(약700평) 견사, 돈사, 주택(104㎡) 버섯재배사 등 관리지역으로 필지는 여러 필지이나 한곳에 붙어있음
- 매 도 가 : 1억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연 락 처 ☎010-3617-8810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6개월과정 광주지역 서재형, 오정수 합격

6개월과정 1년과정

영이 이광희

www.gmega.co.kr

226-5050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44년 전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6월 1일 (첫전도 시작)

국비지원 선착순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원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 無等과 만나세요!! =

7·9級 공 무 원

30 40 주부반모집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개 강 6월 1일 (주·야 병행반 모집)

www.mdgosl.co.kr

222-4560